

유튜브서 ‘신비주의’를 벗다



김남주

고소영

이민정

배우 고현정, 한가인, 이민정에 이어 김남주, 고소영까지. 최근 방송가에 따르면 사오십 대 여자 배우들이 보다 친근한 모습으로 유튜브 방송과 예능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며 대중과 적극 소통에 나서고 있다. 우선 배우 김남주는 데뷔 31년 만에 첫 단독 예능에 도전한다. 지난달부터 방송 중 SBS플러스 '안목의 여왕 김

고현정 이어 김남주 등 여배우들 자신만의 취향·패션·일상 공유 대중과 소통으로 방송 공백 메워 인간다운 모습 매력으로 다가가 지상파에 본인 이름 건 예능 런칭도

갔다 소소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영국 왕실 주최 파티에 초청돼서 갔다가 화장실에서 모유 유축을 해야 했던 이야기까지 서슴없이 털어놓기도 한다. 배우 이민정도 본인 이름을 내건 첫 예능 프로그램, KBS 2TV '가는정 오는정 이민정'으로 시청자들을 만나고 있다. 시골 마을에서 생필품을 실은 이동식 편의점을 운영하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만나는 사람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관찰 리얼리티다. 이보다 조금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배우 고현정과 한가인도 있다. 둘 다 지난해부터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개인 일상을 공개하며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고현정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여행을 다니거나, 화보를 촬영하는 등 스케줄을 소화하는 모습을 담은 브이로그를 선보이고 있고, 한가인은 다양한 유튜브 버들을 게스트로 초청해 토크를 진행하며 예능감을 뽐내고 있다. 과거에는 '신비주의'가 여자 배우들 사이에서 하나의 덕목처럼 여겨졌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발달로 인해 연예인과 팬들 사이의 직접적인 소통 창구가 열린 이후부터는 배우들도 대중과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SNS에 익숙한 젊은 배우들이 먼저 물꼬를 트기 시작한 데 이어 이제는 중년의 여성 배우들도 방송국 예능국 출신 PD들과 제작팀을 꾸려 유튜브를 통해 일상을 낱알이 공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배우 선우영여도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화제를 끌기도 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요즘 대중은 배우들의 일상 영역과 연기적인 영역을 분리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이상 연기 활동에 큰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인간다운 모습이 하나의 매력으로 받아들여지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사진=김남주·고소영·이민정·고현정 유튜브 캡처



고현정

남주'에 출연 중이다. 김남주가 자신의 취향과 패션 스타일 등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방송에서 본인의 대표작에서 입고 나왔던 소장품을 소개하기도 했고, 가족들과 20년 넘게 살고 있는 집 내부와 자녀들의 어릴 적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에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기도 했다. 그는 유튜브 방송에서 "세상의 흐름이 많이 바뀐 것 같다"며 "여러분과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떠한 꾸밈 없이 '나'를 보여주자는 의미에서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배우 고소영도 33년 만에 고정 예능 프로그램에 맡게 됐다. TV 복귀작은 오는 23일 처음 방송되는 MBN 예능 '오은영 스테이'. 예상치 못한 아픔을 온전히 회복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감내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템플스테이에 입소해 1박 2일을 보내는 과정을 담은 프로그램이다. 고소영이 예능에 출연한 것은 1997년 방송인 임백천과 KBS 예능 프로그램 '슈퍼선데이' 진행을 맡은 이후 처음이다. 2017년 이후로는 연기 활동도 쉬고 있는데, 지난 4월부터 '바로 그 고소영'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친근한 모습으로 시청자들과 소통을 시작했다. 걸그룹 아이브 팬인 딸 때문에 콘서트를 세 번이나

전세계 홀린 '제이홉'

4개월 콘서트 마무리... 52만4천명 관객 동원



그룹 방탄소년단(BTS) 제이홉(사진)이 이들에 걸친 월드투어 양코르 콘서트 5만4000명의 관객을 모았다고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15일 밝혔다. 지난 13~14일 경기도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양코르 콘서트 '호프 온 더 스테이지 파이널'(HOPE ON THE STAGE FINAL)은 지난 2월 서울 올림픽공원 KSPD돔에서 시작한 월드투어를 마무리하는 공연이었다. 방탄소년단 데뷔일인 지난 13일 공연에는 팀 동료 진과 정국이 게스트로 등장해 환호를 끌어들였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단체 무대를 꾸민 것은 2022년 10월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진은 솔로곡 '돈트 세이 유 러브 미'(Don't Say You Love Me)를 불렀고, 정국은 제이홉의 랩에 맞춰 '세븐'(Seven)을 노래했다. 세 사람은 유닛(소그룹)곡 '자메 뷔'(Jamais Vu)로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RM, 슈가, 지민, 뷔도 객석에 자리해 공연을 함께했다. 제이홉은 이와 함께 '킬링 잇 걸'(Killin' It Girl), '왓 이프...' (What if...) 등 솔로곡 무대를 다채롭게 들려줬다. 제이홉은 이번 월드투어로 4개월간 전 세계 16개 도시에서 33회 공연을 펼치며 관객 총 52만4000명과 만났다. /연합뉴스

김희선×탁재훈 '한끼합쇼'

JTBC 새 예능 다음달 첫 방송



김희선

탁재훈

연예계 절친한 사이인 배우 김희선과 가수 겸 방송인 탁재훈이 JTBC 새 예능 '한끼합쇼' 진행자로 만난다. JTBC는 '한끼합쇼'를 내달 처음 방송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김희선과 탁재훈이 동네를 돌아다니며 시민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집에 초대받아 선물 같은 밥상을 대접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유명 셰프들이 함께 출연해 오직 집에 있는 재료를 활용한 식사를 차린다. /연합뉴스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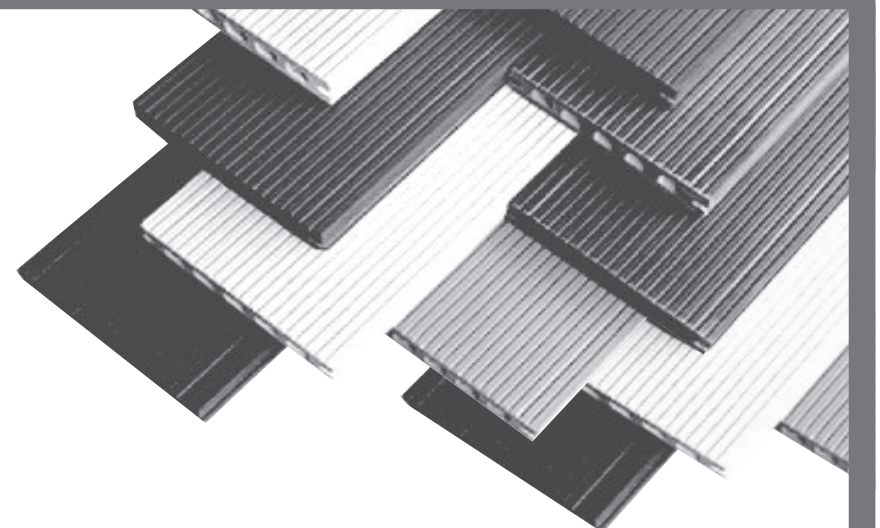
부여사비 창작지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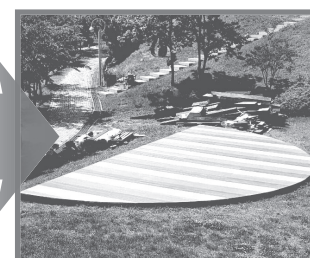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